

◀기쁜 우리 날들▶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

정호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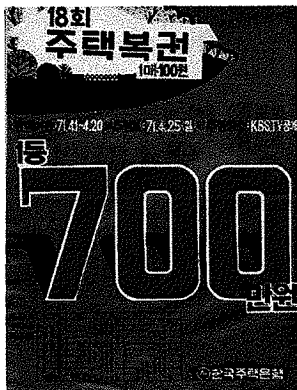


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
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
출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
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
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.

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
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
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
춧불도 꺼져가는 어둔 방에서
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.
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.

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
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
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.
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
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
얼씨구나 부둥켜안고 웃어보아라.
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.

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
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
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
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
꿈을 받아라.
꿈을 받아라.



◀그뻘 그랬지 ▶ 1971년도 주택복권 1등 700만원
지금 수십억원을 웃도는 로또에 비해 맞지 않아도 집
없는 자들을 위한다는 순수함과 일주일을 기다리는
설레임이 함께 스며있던 복권이었습니다. 그때 주택
복권 700만원 1등은 집 한 채를 살 정도의 큰 액수였
습니다.
주로 트롯트 가수가 나와 노래 한 곡을 하고는 화살
을 쏘아 번호를 추천하였습니다. 그때 “준비하시고
쏘세요!” 는 당시 최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.
인생역전을 기대하지 않던 소박한 주택복권의 꿈,
빛바랜 사진첩처럼 남아있습니다.

| | | |
|---|---|--|
|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|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 |
| 제8권 42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 | 2006년 10월22일 |
| ☎ 369-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 | | |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말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



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(87) 목사가 전립선 암
과 뇌수종을 앓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
가 보도했다.

뉴스위크는 그레이엄 목사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의 노년 근
황을 전하면서, 그가 투병 중에도 아내 루드 그레이엄과 함께
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마
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

그레이엄 목사는 1999년 뇌수술을 받고 2005년 뉴욕 집회를 이끄는 등 열정적으
로 활동해왔지만, 이제는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그의 집 주변을 걸어다니는 것도
힘겨워할 정도로 쇠약해졌다. 아침 늦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
형 TV로 중동과 북한에 관한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다. 매일 저
녁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. 그는 “아내와 내가 지금까지 서로
를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” 며 “지금은 내 인생의 놀라운 시간” 이라고 말
했다.

죽음에 대해 그는 “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
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다” 고 말했다. 그는 대신 생을 다시 살 수
있다면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털어냈다. 그
레이엄 목사는 몇 군데 신학대학을 전전한 끝에 휘튼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원
에는 진학하지 않았다. 그는 “가장 후회되는 것은 공부를 더 하지 않은 것” 이
라며 “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” 고 말했다.

그레이엄 목사는 2차대전 당시 아이젠하워부터 10명의 대통령과 친구로 지냈다.
하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. 하지만 최근 중동 문제에 대해서
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. 그레이엄 목사는 “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
인이나 어느 쪽이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드릴다” 고 말했다.

뉴스위크는 말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설명해주는 단어는 ‘겸손
(humility)’ 이라고 전했다.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
을 전한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며 하
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그리스도인들은
속세의 사람들이
하나님을 보는 열쇠 구멍이다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시작은 누구나
잘 할 수 있다
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무리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영광송 Glory | Calvary | 다 같이 |
|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| | |
| 응서의 선언 Proclaim |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| 인 도 자 |
| *찬송 Hymn | 28 | 다 같이 |
| 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d | 35(사 35장) | |
| *신앙고백 Apostle's Creed | 사도신경 | |
| 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인 도 자 |
| 찬송 Hymn | 197장 | 다 같이 |
| 기도 Pray | | 노은숙 권사 |
|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| 빌립보서 2:5-8 | 인 도 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신자가 성가대 |
| 설교 Sermon | 사랑에 눈먼 그분 | 이태한 목사 |
| 찬송 Hymn | 404 장 | 다 같이 |
| 헌금기도 Offering Pray | | 인 도 자 |
| 응답송 Response Song | 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| 다 같이 |
| 축도 Benediction | | 이태한 목사 |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 \$900 총액: \$146,448

◆10월 예배위원◆

| 일자 | 기도 | 차량 | 안내 |
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| 김순자 | 최재학 | 본당: 김순자 |
| 8 | 김영길 | 고성일 | 정회자 |
| 15 | 노은숙 | 권용일 | 현관: 김교석 |
| 22 | 백제성 | 백제성 | 최재학 |
| 29 | 양경배 | 이근평 | 새교우: 이광희 이근평장유진 |

◆10월의 교회력◆

| 주 일 | 예배와 모임 |
|-----|--|
| 1 | 월초새벽기도회(1) 특별새벽기도회(2-7) 살롬, 익투스 찬양(4) 구역예배(6: 추석모임) |
| 8 | 믿음의 어머니기도회(10) |
| 29 | 이삭줍기주일 |

| | |
|---|--|
| 『교회 생활』 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| 『교회 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|
| 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| 수요예배: 7:30 pm |
| 새벽기도회: 금 5:55 | 청년부: 토 오후 5시 |

- 교우소식
*<장례> 장경희 집사(이규화 집사). 지난 8일 별세. 11일 장례식.
질병 속에서도 믿음과 웃음 잃지 않았던 고인을 기억합니다
- 성전건축을 위해 늘 잊지않고 기도하여 주십시오.
*은혜로운 구입과정이 되도록
*건축위원회의 지혜로움
*가능한 시간단축되어 어린이들과 학생, 청년들의 활발한 신앙활동
- 4여선교회 월례회 <일시> 20일(금) 저녁 7시
<장소> 박영숙 집사 자택. 29A Aratonga Ave, Greenlane
- 수요예배 <수요일 저녁 7:30분>
*한 번, 한 번 말씀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여 어느새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 있음을 체험하십시오
- 갈보리축구단 모집 <창단준비위원장: 이재영 집사>
*맨유와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보리 유니폼을 이미 만들어 놓고 축구를 좋아 하는 교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벌써 학생과 청년들은 오늘 이후의 원정경기를 위해 몸 풀고 있습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

칼 월슨 베이커
아름답게
나이 들어가게 하소서
해야 할
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.
레이스와 상아와 황금,
그리고 비단도
꼭 새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.
오래된 나무에
치유력이 있고
오래된 거리에
영화가 깃들듯이
이들처럼 저도
나이 들어감에 따라
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.

